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강해(98)- 기념하고 기대하게 하는 성찬 1

본문말씀 : 고린도전서 11장 23절-29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공효란? 어떤 일을 한 뒤에 돌아오는 좋은 결과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떡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76문 :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 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4문 : 믿는 자들이 이 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6).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전 10:16-17).

*** 생각할 문제**

1. 성찬의 유익에 참여함(75문)

1) 28주일과 26주일은 구조가 어떻게 비슷합니까?

2) ‘주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성찬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오류는 무엇입니까?